



서울사대부중.고

코로나에도 새 생명이...



약탈 피해 동문에 성금답지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류문기
나의 건강일지... 이기준
“영어로 책 5권 냈어요”... 고명숙



Young Ocean

from Salmon *to* Fish Roe Products

Young Ocean has been striving to offer its clients many variety of high quality seafood from Alaska.

Please check out our full line of fresh products and make your order online at www.youngocean.com

20233 80th Ave., S.
Kent, WA 98032
Tel. (253) 395-1900
info@youngocean.com



채자원(26회) · 채양식(22회)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보 [제 4 호]

2020년 6월 30일 · VOL. 4

CONTENTS

- 04 | 코로나가 바뀌놓은 세태
- 05 | “바보, 이젠 탕고야” 박용필(18회)
- 06 | 시카고 동문업소 약탈
- 07 | “힘껏 돕겠습니다” 최웅석(47회)
- 07 | “어느 여학생의 예쁜짓” 최영일(16회)
- 08 | 간추린 주요 뉴스
- 09 | 꼬부랑 고개의 삶 김병찬(8회)
- 10 | 코로나에도 새 생명이 윤재옥(27회)
- 11 | 나의 건강일지 이기준(6회)
- 12 | ‘팔순에 특허’ 발명왕 김성봉(11회)
- 13 | 이렇게 지냅니다 석경숙(12회)
- 14 |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류문기(1회)
- 16 | “여기가 코로나 청정지역” 구송영(47회)
- 17 | 음악은 나의 일상 한윤미(35회)
- 17 | 내 감나무 노홍식(14회)
- 18 | “I Dream, I Can” 72회가 보내온 손편지
- 19 | “영어로 책 다섯 권 냈어요” 고명숙(22회)
- 20 | 남가주 동창회 소식
- 21 | 추모의 글 김영교(11회)
- 22 | 암투병 최규학 동문, 부인 타계
- 23 | “용서를 위한 여정” 김웅(22회)
- 24 | “Simple Truth” 이향림(28회)
- 26 | 동창회 회비 납부 캠페인

회장 겸 발행인 김민주(21회)

편집인 박용필(18회)

편집위원 조남중(34회) 구송영(47회)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213) 268-2301 | snubugo2018@gmail.com
<http://socal.snubugo.net>

“기댈 곳은 동문들 뿐”



박 흥 주 (22회)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우리는 같은 것을 찾아 뭉치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학연), 고향(지연)만 같아도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성을 갖게 되니 이런 문화가 세상 어디에 또 있나 싶기도 합니다.

지나치면 고질적인 병폐 또는 적폐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30여 년을 이곳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건 ‘학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지칠 때 기댈 곳은 가족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선후배 동문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만날 수도 없고 신체적 접촉도 제한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동문들과 전화로, 카톡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위대의 약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부부를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재기의 의욕을 불태워준 것도 동문들 아닙니까. 특히 일면식도 없는 본국의 47회 후배들이 선착순으로 정성을 모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하기조차 합니다.

모름지기 ‘친구는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은 이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동을 흠뻑 먹었으니 후배 친구들은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역시 기댈 곳은 동문들 어깨 뿐이지요. 그래서 동창회 회장단의 ‘어깨’도 세대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0~50대를 발탁해 집행부를 구성, 어깨를 튼튼히 해 많은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동창회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놔다” 비대면이 ‘뉴노멀’ 되고… 동창회 주요 프로젝트 ‘울스톱’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마스크 쓰기, 최소 6피트 거리두기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징후는 비대면, 즉 ‘언택트(untact)’의 급부상이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contact)와 부정사 언(un)의 합성어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또는 비접촉을 뜻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면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동창회도 예외가 아닐 터다. 올해 계획했던 모교 학생 초청 프로젝트와 미주총동창연합회의 총회 겸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 여행 등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 당국의 반강제 ‘집콕’ 조치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는 결코 ‘고립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콘택트(digital contact)’는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연결이 또한 ‘뉴노멀’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몇개월 새 동문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단톡방의 트래픽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만날 수가 없으니 궁금할 수밖에. 단톡방에 접속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했다.

계중엔 가슴 아픈 사연도 올라왔다.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변인재 동문(10회, 뉴햄프셔주)의 둘째 아들 테런스의 감염소식에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다.

“자식이 아플 때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이니 잘 이겨낼 거예요. 빠른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임혜옥, 17회).

“힘 내세요. 이곳 뉴욕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모습에서 선배님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 됩니다”(오시국, 22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회개를 했으니 이제 그만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속히 완쾌되기를 기도할게요”(권오화, 8회).

김경자 동문(13회)은 지난해 캐나다 크루즈 여행 중에 찍어뒀던 변 동문 부부의 동영상에 띄워 위로했다. 허남숙 동문(23회)도 변 동문 부부의 추억을 떠올리며 테런스의 조속한 완쾌를 빌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향인 동문(25회)도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나 한 번 앓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내 아들처럼 잠깐 아프고 지나갈 수도 있다”며 “모두 면역력을 키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단톡방에서는 소소한 일상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테네시주 채타누가에 살고 있는 구송영(트레이시) 동문(47회)은

동네 분들이 잡아다 줬다며 싱싱한 생선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5갤런 통으로 한 가득인데 어떻게 손질을 할지 대략 난감하다는 내용. 그러자 동문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손질 방법부터 조리까지. 남은 생선은 빨리 이웃과 나누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구 동문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맛있는 생선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싱글벙글.

정보성 글도 다수 올라왔다. 18회 단톡방엔 ‘경기부양 체크’(코로나 보너스)가 관심을 끌었다. ‘소득이 소액 시큐리티 뿐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체크를 주느냐’ ‘IRS에 내 은행계좌가 없는 데 괜찮냐’ ‘언제 쫄 받을 수 있는냐’는 등 질문이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과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세대까지 빠르게 끌어들었다. 디지털 기술이 더 이상 밀레니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LA의 이기준 동문(6회)이 대표적인 예다. 남가주 동문회



‘집콕’으로 단톡방은 연신 카~톡~카~톡
동문 아들 바이러스 감염에 위로 쏟아져
사업체 약탈당한 동문에 성금 줄이어

“바보야, 탱고를 춰야지”

변호사인 존(리처드 기어)은 자신을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장에선 늘 다람쥐 쳇바퀴 같고 가족들은 제각각 너무 바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중년의 삶에 갈등하다가 춤에 빠져 드는데...

영화 ‘셸 위 댄스(Shall We Dance)’에서 존이 아내 베벌리(수전 서랜드)와 탱고를 추며 하는 고백이 하이라이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당신과 행복한 거야. 내가 가끔 불행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1980년대 미국서 탱고붐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탱고는 흠칫흠칫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된다. 영화에서처럼 음악과 율동에 맞춰서. 그러나 거리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아무리 현란한 춤사위를 뽐낸다고 해도 실격이다. 둘 사이의 거리는 18인치. 영화에서 춤교사 겸 파트너로 나오는 폴리나(제니퍼 로페즈)가 거리를 유지하라며 존을 다그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대체 사람과 사이에서 가장 편안한 거리는 얼마일까. 에드워드 홀 교수의 ‘거리 분류’는 문화인류학에서 독보적인 이론으로 꼽힌다.

우선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를 말하는데 18인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바로 탱고를 춤출 때의 거리다. 다음은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다. 호감이 전제된, 곧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거리는 18인치~4피트.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다. 육성으로 말했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리다. 일상의 생활에서 만나는 사이로 보통 6~10피트를 지켜야 서로 편안함을 느낀다.

홀은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를 달걀모양의 거품으로 표현했다. 누가 이 공간을 침범하면 버블이 꺼져 불안 초조 때로는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연인도 아닌데 18인치 이내에 접근한다면 당연히 불쾌감이 생겨나겠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사회적 거리’다. 정부의 방역대책만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외출 자제, 행사 모임 취소 등을 권고하며 이 같은 용어를 썼다. 홀의 분류대로라면 6~10피트 거리 밖에 있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일 터.

하기야 감염병 차단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을 것 같다. 성경(레위기)에도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이어서 이에 걸린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이른바 ‘격리 수용’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거리’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줄지에 거리가 썰렁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엔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가 씌워져 있고. 바이러스 보다 ‘사회적 거리’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결코 빈말은 아닐 성 싶다.

휴가철인 7월부터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연다. 섰다 운 되다시피한 경제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그래도 조심 조심 또 조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

미국은 위기가 닥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 취임사를 소환해 내는게 전통처럼 돼 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가 살아 있다면 이런 말을 덧붙였을 것 같다. “바보야, 코로나 말고 탱고를 춰야지.”

빨리 백신이 나와 올 연말 송년 모임 때는 모처럼 많은 동문들이 나와 탱고를 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회적 거리’가 아닌 ‘친밀한 거리’를 유지한 채. | 글_박용필 (18회)

단독방에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렘의 글을 동문들과 함께 공유했다. 연일 숨막히는 소식 속에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한다면서다. 80대 중반을 넘겼는데도 과감히 디지털 세대에 도전해 후배들을 놀라게 했다.

얼친 데 댔친 격이라고 할까. 백인경찰관의 폭력진압으로 흑인주인이 숨진 사건으로 전국의 대도시가 항의시위로 들끓었다.

시카고의 동문 사업체가 시위대의 표적이 돼 약탈을 당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문 부부를 돕자는 캠페인이 일었다. 시카고 동창회는 즉각 이 사실을 연합회에 알려왔다. 동문의 딱한 사연은 카톡 등을 통해 전국의 동문들과도 공유됐다.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본국에 까지 전파됐다. 47회 동기생들이 성금을 모아 보내온 것.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다.

이번 동창회보 제작은 대면 접촉없이 100% 디지털 컨택트로 이뤄졌다. 편집회의는 줌닷컴을 이용했다. 카톡으로 회의시간을 통보하면 그 시간에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PC, 또는 아이패드를 켜놓고 기다린다. 취재는 이메일이나 카톡,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전화를 사용했다. 처음으로 대면접촉없이 회보를 만든 것이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로 확연히 구분된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에는 디지털 소통과 함께 회보가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동창회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 편집위원 공동 취재



명정령 동문 부부가 운영하는 '시티 패션스'가 시위대의 약탈로 아수라장이 돼 있다. 피해액은 35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기의 희망 찾았습니다” 시카고 명정령(29회) 동문에 성금 답지



명정령 동문 부부

“선후배 동문님들의 물질적 정신적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재기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촉발된 항의 시위가 폭동 약탈로 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사업체 두 곳을 잃게 된 시카고의 명(김)정령

충격이 더욱 컸다. ‘차라리 보지 말았을 걸...’

피해 규모는 무려 35만 달러. 보상 받을 길도 막막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보험료가 너무 올라 이를 해지하고 새 보험사를 찾는 도중 이런 상황이 발생한 때문이다.

생계조차 막막했다. 보다 못한 딸 하나 양이 이 같은 사연을 온라인모금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com)’에 올렸다. 목표액은 피해액에 맞춰 35만 달러로 책정했다. 계정개설 첫날인 8일 현재 5600여 명이 동참해 18만 3000여 달러를 모았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일 줄 몰랐다.

자신을 15살이라고 소개한 어느 기부자는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이 12 달러 뿐이다. 실망하지 말고 매장을 꼭 다시 열라”고 격려해 감동을 줬다.

부부는 “모금 사이트에 올라온 많은 응원 메

(29회) 동문.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뜻밖에도 동문들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하고 격려 메시지가 잇따르자 다시 일어설 각오를 다지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명 동문 부부는 1986년 미국에 이민 와 시카고 남부의 흑인 역사문화지구인 브론즈빌에 의류매장인 ‘시티 패션스(City Fashions)’를 오픈, 운영해 왔다. 남편 김학동씨는 커뮤니티 봉사에도 앞장 서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9년 전 오픈한 업소는 부부의 노력으로 탄탄한 사업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매장 문을 닫고 한동안 예약주문 픽업서비스만 하다가 매장 재개를 앞두고 일이 터졌다.

지난 5월 31일 갑자기 들이닥친 시위대에 의해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진열된 상품들은 거의 모두 약탈당하고 말았다.

부부는 이들의 약탈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애를 썼건만 그들에 의해 자식같은 사업체가 반나절도 안돼 폐허나 다름없게 돼

시위대에 두 업소 약탈당해... 피해액 35만 달러 시카고동창회 미주총동창연합회 성금 모아 전달

시지를 하나씩 읽어 가는데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며 “많은 이들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동문들도 명 동문 가족 돕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김성봉 동문(11회)이 앞장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시카고 동창회는 지난 6일 명 동문의 딱한 사정을 미주총동창연합회에 알려왔다. 소식을 접한 연합회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즉각 이 소식을 남가주동창회 등 전국 동문회에 공지했다.

연합회는 즉각 자체 기금에서 1000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명 동문 돕기에 적극 나섰다.

시카고 동창회는 연합회의 즉각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어렵게 일군 사업체를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명 동문 돕기에 적극 나선 모든 분들께 부부를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 문의: 노성환 시카고 회장(610-269-5566)

“힘 내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채웅석 (47회)



시카고 동문 업소가 시위대의 폭동에 이은 약탈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국의 47회 동기생들이 성금을 모아 미주총동창연합회에 보내왔다. 다음은 동기 대표 채웅석 동문이 전해온 소식을 1인칭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6월 7일 새벽 쫄이다. 카~톡~카~톡! 이 시간에 웬 카톡? 폰을 열어보니 동기 (구)송영이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명정림 선배에 관한 내용이었다. 삶의 터전인 사업체가 시위대의 약탈로 아수라장이 돼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 내부 사진과 뉴스 영상을 보내왔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안타까웠다.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우리 다 같은 동문 아니냐. 도와 드리자.” 구송영이 보내온 문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렇지 우리가 남인가.

즉시 동기들 단체 카톡방에 이 소식을 알렸다. 선착순 15명!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다. 서둘러 마음을 모으고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각자 조금씩 힘을 보태자. 호응은 즉각적이었다. 15명은 불과 5분만에 채워졌다. 선착순 마감후에도 뒤늦게 ‘나도!’ ‘나도!’하는 바람에 19명으로 늘어났다. 그후에도 동참의사를 밝힌 친구들이 더 있었으나 마냥 기다릴 수 없어 19명의 마음과 47회 동기회비를 얹어 빨리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시카고의 명 선배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성함을 들어본적도 없다. 그런데 알고서도 눈을 감아버리면 도리가 아닌 것만 같았다.

지난해 우리 47회는 모교에서 매년 열리는 두번의 체육대회 중 선농가족체육대회(10월)를 주관해 맡았다. 특히 미주총동창연합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기억이 있다. 그런 미주 동문이 피해를 당했다는데 나몰라라 하면 되겠는가. 동기생들도 모두 한마음이었을 것 같다. 비록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명 선배님의 재기에 작으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명 선배님. 47회가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기부자 명단 : 채웅석, 신혜진, 정상철, 정영기, 정영미, 우남영, 김권기, 최신규, 최윤정, 안미희, 김성은, 나용식, 구송영, 김선경, 장동욱, 박장군, 홍동은, 정혜연(무순)

연합회 1,500여 달러 모금

명정림 동문 돕기 모금활동을 벌인 미주총동창연합회는 자체 성금 1000 달러를 포함해 모두 1,558 달러를 모아 시카고 동창회에 전달했다. 연합회의 캠페인에는 본국의 47회 동기생들도 동참하는 등 호응이 컸다.

성금은 시카고 동창회를 통해 명 동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코로나 단상

어느 여학생의 ‘예쁜 짓’

최영일 (16회)



불편하지만 걸어서 동네 마켓에 갔다. 전날 도저히 파킹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 왔기 때문이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둥지둥 정신 없이 카트에 물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였다.

물건은 없고 상품명과 가격표만 보이는 텅빈 하얀 선반들이 무서워 보였다.

손님들의 쇼핑 카트에 넘치도록 실리어 있는 화장실 휴지, 페이퍼 타올, 물병들, 계란, 비누, 각종 세제, 라면 박스, 쌀 등등도 무서워 보였다.

그리고 어느 라인인지 어느 라인인지 모를 정도로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손님들... 앞줄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웃거리다. 뒤에 선 사람의 카트에 발이 부딪쳐 짜증을 내는 사람, 줄어 들것 같아 보이지 않는 라인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젓는 사람, 누가 새치기 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필요한 물건을 하나도 못샀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틈에 나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속도라면 내 차례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다. 긴장과 격정과 지루함과 짜증스러운 분위기...

그때 갑자기 하이 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한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순서를 양보할 수 있느냐고 겸손히 그러나 사정 하듯이 물어 온다. 물론 나는 좋다고 허락했는데 이 학생은 계속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차례차례 사정을 이야기하며 할머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양해를 구한다: “여기 할머니께서 아까부터 좀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먼저 계산 하실 수 있게 순서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은 결국 할머니를 계산대까지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원래 자기 순서로 돌아온다. 내 옆을 지나가는 그에게 나는 엄지 손가락을 올려 보이며 칭찬해 주었다: “참 잘했어요!” 그 학생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 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 예뻐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내 모습을 볼 때 같은 무서움을 느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 여학생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가질 때 나도 예뻐 보일 수 있고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도 사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가주총동창회장에 박흥주 동문(22회) “평준화 이후 세대 발탁하겠다”

남가주총동창회 회장에 박흥주 동문(22회)이 선출됐다.

박 동문은 지난해 12월 12일 LA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 30대 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이에 앞서 10월 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박 동문은 총회에서도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

박 동문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단행해 집행부를 더욱 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교평준화 이후 세대가 주축이 되는 회장단을 꾸려 일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각 동교회 대표들과 선후배 동문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회장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심재호 동문, 선농장학위원장 선임

남가주 선농장학위원회 위원장에 심재호 동문(27회)이 선출됐다.

지난 2월 7일 LA한인타운의 JJ그랜드 호텔 연회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심 동문은 14명의 참석 이사 가운데 12명 찬성(2명 기권)의 압도적인 지지로 위원장이 됐다.

앞서 김민주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사회는 기존 남가주선농장학재단을 남가주선농장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을 심의, 표결에 부쳐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장학위원회는 정관 변경안에 따른 것으로 올 연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 동문은 그간 총동창회 회장과 이사장을 지내는 등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컸다. 특히 동창회보 발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심 위원장은 곧 약간명의 장학위원과 고문을 지명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준(6회), 윤정현(6회), 김경자(13회), 최영일(16회), 박준옥(17회), 박용필(18회), 김민주(21회), 박용훈(21회), 박흥주(22회), 심종택(22회), 김영태(24회), 김흥숙(27회), 심재호(27회), 조남중(34회).

연합회 총회 겸 단체 관광 연기 코로나 사태... 내년 5~6월 예정

당초 올 9월말로 예정됐던 미주총동창연합회 총회 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관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연합회는 지난 6월 4일 김민주 회장의 사회로 화상회의를 열고 행사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각 지역 회장단은 내년 개최 시기를 5월이나 6월 중으로 연기하자는 데 합의하고 회장단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 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단체 모임과 여행 등이 제약을 받아 취해졌다. 본국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왔으나 감염증 확산으로 아깝게 무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회장단(무순)은 다음과 같다.

시애틀(채양식), 애틀랜타(임혜옥/황춘기), 댈러스(김웅), 샌프란시스코(곽정연), 미시건(신광용), 테네시(구송영), 캐나다 토론토(이양배), 남가주(김민주, 박흥주) 등이다.

.....

남가주 선농장학생 모집 동문및 자녀, 마감 11월 15일까지

남가주선농장학위원회가 2020~2021 연도 장학금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희망자는 남가주사대부고동창회 웹사이트(www.socal.snubugo.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11월 15일까지.

장학금은 심사를 거쳐 개별통보되며 오는 12월 12일(토)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창회 총회 겸 송년모임에서 수여한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사대부중고에 재학 또는 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남가주에 소재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계속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자.

*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문의 자녀로 미국 내 학교(소재지와 관계없음)에 9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의지와 노력이 특출하고,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며, 특기 및 특별한 예능이 두드러진 경우.

문의: (213) 604-5978

선농합창단 새 단장에 박영훈 동문 창단 7주년 기념 행사... 단원 모집



지난해 올림피아 양로병원 공연 장면.
올해도 생스기빙데이 즈음 양로병원을
방문해 위문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남가주 선농합창단의 새 단장에 박영훈 동문(21회)이 선임됐다. 지난 2월 11일 새 단장 취임과 함께 창단 7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행사도 함께 가졌다.

박 단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연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11월 생스기빙

데이를 맞아 올림피아 양로병원 위문 공연은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박흥주(22회)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 동문 20여 명이 합창단의 7주년을 축하했다.

한편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의 미주평안교회(170 S. Bimini Pl., L.A.)에서 연습을 갖는다. 새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합창단 측은 동문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합창단은 2년 전 채홍석씨를 초빙해 정기발표회를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윤병남 동문(7회)으로부터 지휘봉을 건네 받은 채씨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수학한 정통 뮤지션이다.

합창단은 지난 2016년 모교 70주년 기념예술제에 초청받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율타리 선교회 후원을 위한 음악회에도 참가해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율타리 선교회는 나주옥 목사(17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음악회는 노숙자들의 구제와 선교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자선 공연. 따라서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인정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는 영예도 함께 누렸다.

문의: (818) 808-3931

노년의 향기

‘꼬부랑 고개’ 수도 없이 넘어온 여든셋의 세월



김병천 (8회)

우리 8회는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 모두 19명이 살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은 꼭 한인타운의 식당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방콕’에 묶여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래도 서로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곧바로 다음날 ‘전원 소집명령’을 내릴 참이다. 제발 그 날이 빨리오면 좋으련만...

우리도 이제 80대여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인 세대에 속한다. 어느새 세월이... 어쩔 수 없이 ‘꼬부랑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된다. 남과 북의 혈육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6.25의 참극, 고된 군 생활, 가난한 조국에서의 생존경쟁,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한 몸부림, 노스리지 대지진, 한인 이민역사의 변곡점이 된 LA 폭동,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어 터진 흑인 시위와 약탈 등등.

삶은 왜 이럴까. 앞친 데 이어 덮쳐오고를 늘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마다 짐을 싸고, 풀고 하면서.

감회가 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음에 내 자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고된 훈련 가운데서도 우릴 견져내 정금같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세상은 인간의 생각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격리되고, 고령의 우리들이 앓을 자리 찾기에 현기증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만큼 늙어 있음에 감사 را 드린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창조주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참평화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과 배려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한다.



“할머니가 같이 있어줄게” 코로나도 막지못한 내리 사랑

윤재옥 (27회)

1950년 6월.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때에도 아가들은 태어났다.

폭탄 소리에 놀라 키가 안 컸
다는 둥 먹을게 없어서 몸집이
작다는 둥 개그의 소재로 쓰여
지기는 해도 대부분의 아가들
은 무사히 자랐고, 생각도 안나
는 옛날 일을 '나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며 영화 속 전쟁 이
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2020년.

1월 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
러스가 미국으로 번지던 3월 말
에 바이러스와는 전혀 아무 상관
도 없이 우리 집에서는 새 생명
이 태어났다. 우리 딸이 두살 반
터울로 둘째 딸아이를 출산한 것
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발견되었다. 확진자
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 같았
고 '미국이야 설마' 하는 마음이
었는데 뉴욕 상황이 두려오고 주
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모습
이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긴장
이 되었다.

아기는 곧 나울텐데 병원엔 갈
수 있는건가. 병원은 안전하긴 할까. 어른들 쓰는 화장지가 없
으면 다른 걸로 대치한다해도 아기 기저귀는 그럴 수도 없는
데...

모유가 문제가 있으면 분유를 먹여야 할텐데 스토어에 분유
는동이 났다하고...

온갖 걱정이 매일 심해지는 뉴스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
났다.

그런 와중에 예정일은 다가왔고 우리 딸아이는 며칠 앞당
겨 병원에서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보호자는 아기 아빠 한명



우리가 어릴 적 전쟁 이야기를 하듯 손주도 '나 어렸을 때는 휴지하려고 줄을~'

해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기는 '나는 모른다~~'
무럭 무럭 잘 만 크다.

마치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지금 내 사명은 오로지
튼튼하게 무럭 무럭 잘 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나큰 아픔과 슬픔, 상처들을 남겼지만
잊지 못할 감동도 또한 사이 사이에 스며 있음을 느낀다.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릴 적 겪은 전쟁 이야기를 하
듯 두 달 전에 태어난 우리 새별이도 이 다음에 이야기 거리
가 많겠지.

'나 어렸을 때는 말이야 휴지하려고 줄을 썼고 집에서 인터넷
넷으루 예배를 드렸거든....' 사랑한다 새별아!

(윤 동문 부부는 27회 동기로 부군은 전 남가주 동창회 부회
장 정봉철.)

동문 관련 소식 문의 및 제보는
(213) 268-2301

아내의 건강식단이 '보약' 하루 스케줄이 짝 차... 친구들과 자주 소통

허리도 꼳꼳, 몸도 튼튼, 기억도 여전히 총총... 서울법대 출신답게 논리까지 정연했다. 지난 1월 말 LA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 이기준 동문(6회)은 좌중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정관수정안을 읽으면서도 돋보기는 커녕 안경도 쓰지 않아 정말이지 놀랐다. 저 연세에 저 글씨가 정말 보이는 걸까.

옛말에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했다. 그 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일게다. 맑고 깨끗한 눈은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 그래서 눈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지 않는가.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백내장도 없으니 아직은 쓸만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체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길래... 하루 일과를 물었다. 6시에 일어나 커피와 과일 파우로 간단히 요기를 한 다음 인근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이젠 1년 365일 거의 '루틴'에 속한다. 치공(기공), 타이찌(태극권)에 이어 공원주변을 몇바퀴 걷는다. 치공은 중국식 복식호흡, 타이찌는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쿡후다. 중국계가 대부분이지만 20년 넘게 사귀어 사귀어서 친구처럼 지낸다.

아침 식사는 9시. 오트밀에 헴프와 바나나, 체리, 호박 말린 등을 듬뿍 넣어 먹는다. 계란은 반숙으로 2개. "노른자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괜찮으시냐"는 질문에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친다. "모르는 소리. (노른자엔) 레시틴이라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지. 더구나 계란은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고, 노인들한테 '딱'이에요."

그래도 걱정이 돼 콜레스테롤 수치를 물어봤다. 놀랍게도 135. 믿기지 않았다. 이왕지사 말 나온 김에 혈당 혈압 다 밝히는게 어떻겠느냐고 슬쩍 떠봤다. "그거, 뭐 어려워. 그렇지만 너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정상이라고만 해뒀요." 자신만의 비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특별히 드시는 게 있나요. 건강 주스라든지..." 주저없이 답을 내렸다.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마셔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레시틴을 물어봤다. 듣고 보니 아주 간단했다. 사과식초 한



아침 '루틴'은 치공, 타이찌 수련 사과식초는 성인병 예방에 '딱'

스푼에 물 세 스푼을 소주잔에 담아 마신다는 것. 코스트코에 가면 '애플 비니거(apple vinegar)'를 판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곁들였다. 성인병 예방에 좋다며 엄지를 척 들어 보였다.

커피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신다. 옛 한국의 '다방커피'처럼.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블랙으로 마시라고 성화지만 평생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고개를 젓는다.

식사는 소식 위주. 그런데 밥 한 공기를 똑딱 해치운다고 한다. 육류와 생선, 야채를 골고루 섭취한다. 이쯤되면 결코 소식은 아닌 셈. 밥은 현미나 잡곡류가 아닌 흰 쌀(롱 그레인)밥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맛 있기 때문이라는 것.

대화가 한 시간 쯤 지날 무렵 '진실'을 털어냈다. "내가 이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다 우리 집 사람 덕분이야." 모든 공을 평생의 반려 김옥지 여사에 돌렸다. 김 여사는 '엄지의 제왕' 광팬.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MBN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이 강추하는 음식을 눈여겨 봤다가 그대로 만들어 밥상에 올린다는 것. 건강식단이 따로 없겠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골프광. 1960년대 초부터 클럽을 잡았다. 요즘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부에나 파크의 로스 코요테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라운딩 한다.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반 가량은 헬스장에 가 바이크를 타며 땀을 흘린다. 아침 운동에서 시작해 저녁운동으로 하루 일과를 마감한다.

"낮잠? 안 자요. 그래도 드러눕고 싶을 때는 뒷마당에 가 산책을 하지. 노인은 드러누우면 안 돼. 몸을 어느 정도는 피곤할 만큼 굴러야 돼요."

뭐니뭐니해도 이 동문의 건강비결은 따로 있었다. 월요일엔 장기열(7회), 이병항(8회), 노광길(11회) 등 후배들과 어울린다. 장소와 시간은 20년째 한결 같다. 12시 정도 LA한인타운의 조선갈비. 목요일엔 대학 동문들과 함께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구구팔팔의 여생을 얘기한다.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더 자주 전화걸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자주 보고 소통하세요. 그게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8순에 특허 따낸 김성봉 동문 자동차 자동 잠금장치 신기술... “상용화 됐으면”



“지금까지 특허를 목적으로 연구한 아이템은 50개가 좀 넘을 것 같네요.”

시카고의 김성봉 동문(11회)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명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50여개 가운데 그가 특허를 획득한 건 두 개다. 올초 특허를 받은 ‘Locking Systems for Vehi-

내로라하는 수재들만 몰렸던 곳이다.

엔지니어도 아닌 물리학도가 어떻게 기술특허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기술은 엔지니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가 특허에 매달리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가며 연구에 집중한다는 것.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파고들거예요.”

김 동문은 부인 박순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손주만도 여덟이다. 지금은 아들 내외, 손주 다섯과 함께 살고 있다.

고향은 평안북도 구성. 해방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온 가족이 걸어서 월남해 서울에 터를 잡았다.

cles’는 주차한 후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잠궜지는 신기술이다. 운전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변에선 김 동문의 기술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동문은 1974년 미국에 이민온 후 줄곧 특허에 매달렸다. 1년에 1~2개 꼴로 기술을 개발했지만 대부분 막판에 포기했다. 관련 업계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지레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름아닌 자금 부족. 기술 개발도 어렵지만 특허 출원 후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데 자금 마련이 어려워 역부족이었던 것. 김 동문이 첫 개발한 기술은 자물쇠와 관련된 것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상용화를 못해 지금도 못내 아쉬워 하고 있다.

김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 물리학과 출신이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이민 온 후 줄곧 연구
1년에 한 두개 꼴,
아이디어 떠오르면 매달려

카톡과 전화로 취재를 마쳤지만 사진이 없어 문자를 보냈다. “선배님, 특허 서류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날에야 회신이 왔다. “화장실 고치느라 흠디포엘 두 번이나 갔다왔어요. 이 바람에 카톡을 못봤습니다. 미안해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아니, 플러머를 부르지 않고 직접 고치세요?” 이번엔 곧장 회신이 왔다. “그럼요. 플러머가 별건가요.”

평생 한 번도 따기 어렵다는 특허를 몇개나 받았는데 화장실 플러밍 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을 터. 그러나 특허와 관련된 사진은 끝내 못받았다. ‘별 거 아닌데 너무 잘난 체하는 것같아서’라는 이유를 댔다. ‘발명왕’은 무척 ‘힘블(humble)’했다.

글_박용필 (18회)

강영우 장학재단 ‘감사의 밤’ 행사 1만5000 달러 모금, 시각장애 6명에 장학금



강영우 장학재단 이사장인 석경숙 동문(12회, 사진 가운데)은 지난 2월 재단 후원자들을 조지 메이슨 도서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

석 동문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라며 “이 같은 헌신은 시력을 잃고 절망하는 장애자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석 동문은 한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의 부인이다. 지난 2012년 강 박사가 타계하자 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강영우 장학재단을 설립해 이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석 동문의 장남 폴 강 안과의사도 참석해 최고시력을 뜻하는 2.0/2.0에 2020년의 의미를 담아 2,020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 감동을 줬다. 석 동문은 행사에 참석한 50여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감사장을 수여하며 이들의 ‘사랑의 기부’에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한산건설회사의 송진근 대표가 보낸 3,000 달러의 성금은 재단 측에 큰 격려가 됐다. 송 대표는 “지나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한 해 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 작은 성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2, 제3의 강영우 박사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하겠다”고 다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강영우 장학재단 설립의 산파역할을 맡은 이는 전종준 변호사다. 자신의 저서 ‘유싱킹(uThinking)’ 출판 수익금 2,800 달러 전액을 기부해 장학사업의 시드 머니 역할을 했다.

백악관 차관보 지낸 부군 ‘장애는 저주 아닌 축복’

장학재단은 지난 한해 1만5,000 달러의 기금을 모아 6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뉴저지 시각장애인 컨벤션참가, 한미장애인협회, 밀알선교회 등을 지원했다.

한편 학창시절 석 동문의 이름은 석경숙이었다. 강 박사가 프로포즈하면서 돌(석)로 10년, 돌 보다 나은 은으로 10년, 은 보다 귀한 옥으로 10년을 살라며 ‘석은옥’이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석 동문은 강 박사의 맹학교 시절 자원봉사자로 처음 만나 온갖 시련과 편견을 딛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강 박사는 체장암 진단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받은 국제로타리재단 평화센터 평화장학금 25만 달러를 전액 기부하는 선행을 실천해 마지막까지 세계인들의 가슴에 희망과 사랑을 심어줬다.

그의 저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에서 강 박사는 장애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봤다. 그래서 장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사람들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엔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나쁜 일이 생기면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긍정적인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역경은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석 동문은 이같은 부군의 뜻을 받들어 강영우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해 세상의 길라잡이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나루의 그 '사건'이 내 삶의 변곡점 나룻배 타고 한강 건너... 평생 '종' 이 되길 다짐

1950년 6월 28일. 내 삶의 변곡점이 된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나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 짐작하겠지만 한강 인도교가 끊어진 날이다. 북의 인민군이 남침을 개시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군 당국이 서둘러 다리를 폭파해 수십만 서울 시민이 적치하에서 고초를 겪었지 않은가.

나는 그 전날 떠나지 않겠다는 형님내외를 강요하다시피해 피란을 보냈다. 다음날 자고 나니 수도 서울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서둘러 광나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 두척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저 배만 탈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했다.

나룻터에 갔는데 웬걸, 파발총을 든 인민군 병사 둘이 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피란민들의 승선을 저지하는 커녕 못본 체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란민을 가장한 인민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때 배를 못탔다면? 나는 꼼짝없이 북으로 끌려갔을 거다. 공산당이 제일 미워한다는 ‘예수쟁이’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터지기 전 형님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문기야, 너도 이제 무엇을 할 건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니? 육군사관

학교에 가든지,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력이었다. 솔직히 그때는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광나루의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 약속이다. 육사 대신 신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원에 도착한 나는 서울대 사대 동기생을 만났다. 이일철(훗날 인천교육대학 학장)과 함께 10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 조직을 꾸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학도의용대다.

우리는 부산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일본에 가 미 육군 제 7사단에 배속됐다. 이곳서 실전에 가까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7사단은 미 해병대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될 부대였다.

그날(9월 15일) 우리는 인천 앞바다 월미도에 역사적인 발을 내딛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탄 군함엔 일본 주둔 연합군최고사령관 겸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한창일 때 공교롭게 병을 얻었다. 탈장으로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군복을 벗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광나루에서 그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부산에 있었던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서울대 복학

은 포기한 채.

여기서 잠깐 형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겐 평생의 ‘멘토’이자 ‘스승’이나 다름없던 분이시다. 그 분의 이름은 류형기.



류문기 동문은 6.25 참전 용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 유공자 증명서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육사 갈 것인가, 신학교 갈 것인가 번민 재학시절 우익활동, 사진 몽땅 불 태워



류형기(왼쪽) 전 한국감리교 감독과 함께.

6.25 와중에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다.

우리 가족의 고향은 평북 영변이다. 김소월의 시 ‘약산의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버님은 독실한 교인이어서 형님을 서당 대신 미션스쿨에 보내 신식 교육을 받도록 하셨다.

일찌기 미국 유학(하버드)을 다녀오셨는데 형수님(신형숙)을 유학중 만나 보스턴서 혼례를 치렀다. 형수님은 김활란 박사의 1년 선배로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이시다.

해방 후 미 군정이 실시되자 또래의 유학파들이 군정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의 단 맛을 만끽했으나 형님은 인쇄소(조선인쇄주식회사)를 맡겠다고 자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각종 기독교 서적은 물론 한영사전, 영한사전도 직접 저술하는 등 한국 출판계의 틀을 잡았다.

형님의 일생은 책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음의 병상에서도 펜을 놓치 않으셨다. “~삼십일만 주시면 구약을 마치고 갈 터인데, 저를 데려가 뭘 하시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형님이 유연처럼 남기신 말이다.

다시 내 얘기로 되돌아 온다. 나도 형님처럼 미국유학을 다

녀와 대전감신(목원대학) 교수로 부임해 후진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 때 아내(류한나)를 만나 세 아들을 얻었으니 그런 축복도 없었지 싶다.

이후 연세대 의료원(세브란스)에서 교목 겸 원목으로 6년 여를 일하다가 1978년 미국에 이민을 왔다.

개척교회로 시작했다. 신자는 10명 남짓. 은퇴할 때쯤에는 300명이 훌쩍 넘었다. 광나루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는지 내게 과분한 은총을 내려 주셨다.

은퇴 후 처음으로 대륙횡단을 했다. 캐나다에선 부고시절 절친 윤수현(의사)을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다. LA로 돌아와선 양로병원(그랜드 파크)에서 봉사활동을 거의 20년이나 했다. 성경이나 신문을 읽어 주는 등 노인들의 귀와 눈이 돼 노년의 삶을 이들과 함께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남가주선농합창단에서 활동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후배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다 보면 격동기의 학창시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사실 내겐 그 시절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부고 재

학시절 학생운동(우익)을 했기 때문이다. 6.25가 터지자 사진들을 몽땅 불에 태워버렸다. 지금도 가끔 그래도 몇 장 쯤은 남겨뒀아 했는데... 후회막급이다.

건강은 썩 좋은 편이다. 시력도 청력도,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수치다. 아내의 ‘건강밥상’ 덕분이다. 지난해엔 5년짜리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았다. 집안에 탁구대도 갖다 놓고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핑퐁 배틀’을 벌인다. 아직은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

이제 내 나이 구순이 넘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할 삶의 궤적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찌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가치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을 연말 송년모임에도 나가 후배 동문들과도 스스럼없이 재밋

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박흥주 남가주총동창회장이 우리 부부에게 ‘라이드’를 주겠다고 다짐했으니 올해는 만사 제쳐놓고 꼭 참가하겠다.

형님 류형기는 한국감리교 감독 은퇴 후 20년 넘게 양로원 봉사



“마스크 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코로나 청정지역...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은퇴하고 싶은 곳

구승영 (47회)



제가 살고 있는 채타누가(Chattanooga)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테네시주에서도 그닥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전제 인구라고 해봤자 18만 명 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인종 구성은 백인이 60%, 흑인이 35%, 아시아계가 2%는 돼요.

이민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캘리포니아 LA 인근이었고 신혼살림을 한곳이 뉴저지, 그 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살다가 이곳 채타누가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채타누가로 이사할까라 하니 모두 ‘거기가 어디?’ 하더군요. 그래서 테네시라고 하면 대부분 ‘아하 ~ 테

네시 왈츠?’ 1950년대 패티 페이지가 불러 글로벌 히트송이 된 이 노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죠.

큰도시 사는 분들은 소도시로 이주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난다는 말씀들을 많이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나니 한번 두번 다

녀가시고는 아예 짐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 만큼 이곳 분위기와 자연경관에 매료됐기 때문이겠지요. 동부 서부 큰도시에 모두 살아 본 제가 이 작은 도시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져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지, 왜 지인들을 불러모으는지 말씀드릴 테니 한번 제가 사는 동네에 꼭 빠져보세요.

차를 달려 북으로 13시간이면 뉴욕, 남으로 13시간이면 플로리다 마이애미, 서쪽으로 13시간이면 텍사스 댈러스. 이런 좋은 지리적 조건 덕에 오래 전부터 물류산업이 번창했지요.

한인인구는 인근 도시와 유학생들을 모두 합쳐도 500여 명 가량이어서 사실 거의 모두 알고 지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거예요. 애틀랜타에 큰 한인마켓이 여럿이라 장보러 한시간 반 정도 가야하지만 100 마일 정도의 나들이는 이제 익숙하고 웬만한 야채는 뒷마당 텃밭에서 길러먹으니 부족함이 없지요.

이곳은 사계절이 있는데 한국의 대구같은 느낌이라고들 해요. 여름엔 조금 습하지만 테네시 강과 인근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에 살만하고 겨울엔 견딜만한(?) 추위로 3~4 년

에 한번 꼴로 눈을 구경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은 가보고 싶어 한다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역시 테네시와 노스 캐롤라이나에 걸쳐 있어요. 스모키 마운틴은 브라질의 아마존 다음으로 많은 종류의 야생화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어요. 온갖 나무들이 뿜어내는 탄화수소와 수증기로 인해 일년 내내 연기에 쌓인 듯 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스모키 마운틴 - 공기가 왜 좋을 수 밖에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서부에 나바호가 있다면 이곳 동남부엔 체로키 인디언이 있지요. 강제이주에, 학살에, 핍박받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동굴에 숨어 이겨내고 버틴 체로키 인디언의 후예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Amazing Grace’는 존 뉴턴 목사가 작사했지만 원곡은 체로키 인디언들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자신들의 국가처럼 여기고 부른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때에도 이 동네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예전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게 지냅니다. 마스크 쓴 사람 찾는 게 오히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보니 다른 곳도

그런줄 알고 있다가 뉴스로 심각한 상황을 접하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곳은 ‘코로나 청정지역’이지요.

자랑을 더 해볼게요. 2014년, 2017

년, 2018년 미국내 ‘가장 성경적인 도시’ 1위, 미국내 ‘베스트 은퇴도시’ 22위, 2014년 미국내 ‘살기좋은 도시 탑 100’안에 랭크, 2014년 미국내 ‘탑10 다운타운’. 어떠세요. 자리잡고 살만한가요? 채타누가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제 가족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요즘 저희 부부는 집짓기 프로젝트에 들떠있습니다. 사실 채타누가로 이사하고 난 후 두번째 짓는 집인데요. 첫번째 집은 큰딸아이 하나 일때라 적당한 크기의 집을 아무것도 모르고 바쁘게 쫓아다니며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나 이번엔 딸 넷과 꽤 오랜 시간 살 집을 지을 작정이예요. 그래서 더 까다롭게, 더 꼼꼼하게 따졌지요. 땅을 고르는 데만 해도 몇달은 걸린 듯 합니다.

목표 준공일은 연말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새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의 족쇄에서 벗어나 채타누가를 방문하시는 선후배님들을 크진 않아도 아늑한 우리가족이 지은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 봅니다. 제 전화번호 남길게요. (423) 991-9610.

애틀랜타 한인타운 한시간반 거리 ‘버킷 리스트’ 스모키 마운틴도 지척

“노래에 몰입하면 성취감 생겨요” 공연수익금 전액 청소년센터 후원금으로 내놔



한윤미 단장



지난해 성탄축하 공연을 가진 아뮤제 앙상블. 공연 수익금은 전액 뉴욕청소년센터 후원기금으로 내놔.

동문이 이끌고 있는 합창단이 공연수익금을 모두 뉴욕청
인청소년센터에 후원기금으로 내놔 커뮤니티에 훈훈한 화제
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한윤미 동문(35회). 아뮤제 앙상블(Amusez En-
semble) 단장이다. ‘아뮤제’는 프랑스어로 ‘즐거다’는 뜻. 단
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다. 지난해 말 ‘겨울 음
악회’를 열어 모금한 돈을 모두 청소년센터에 전달했다.

청소년센터의 최지호 사무총장은 “아뮤제 앙상블의 도움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 돈은 센터의 핵심지역인 퀸즈지역
중고교 방문, 바디워십 페스티벌, 한동대 국제캠프 등에 유용
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뮤제 앙상블은 지난 2016년 창단됐다. 당초 이름은 ‘칸
타빌레(Cantabile)’.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듯이’라는 뜻이
다. 표정을 담아 선율을 아름답게 흐르는 듯 연주하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한인단체 후원 기금 마련 음악회를 비롯해 양로원

위문공연 등 한인커뮤니티와 호흡을 함께 해왔다. 한 동문
은 원래 음악전공자가 아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출신이지
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 등에서 노래를 불러 음악과 함
께 호흡을 하며 살았다.

‘누구나 열정을 쏟고 몰입하다보면 즐거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합창단 이름이 칸타빌레에서 아뮤제가 된 배경이다.

합창은 혼자 할 수 없는 장르다. 한 동문에 따르면 옆 사람
과도 화음을 만들어야 해 성취감이 생긴다.

매주 목요일 연습을 갖는 합창단은 출석률 체크가 엄격해
이날엔 모든 단원들이 빠짐없이 모인다. 지난해엔 국세청
(IRS)에 비영리재단 등록(IRC501c3)을 마쳐 도약을 위한
준비도 끝냈다.

한 단장은 “합창단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며 “부고 선후배
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장 한윤미, 뮤직 디렉터 황윤미, 피아니스트 이세리

문의: amusezensemble@gmail.com

뒤뜰의 정경

뒤뜰에 감나무 둘이 있다. 재작년 가을에 심은 어린 나무지
만 작년 초에 열두어개 열린 감을 확인해 놓고 좋아했는데 가
을에 보니 다 떨어지고 정말로 하나도 건지지를 못해서
지금도 아까워 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꼭 맛이라도 볼 생각으로 정성을 더 하
고 있다. 비료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다
른 나무들 모르게 비료도 물도 더 많이 주고 있
다. 그런데 어제도 또 콩알만한 아까운 감꼭지가
나무 밑에 나딩굴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안되겠다 싶
어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한 결과 이 모든 것이 옆집 할머니
매리엔 식구들 짓이란 것을 알았다.

매리엔네 집 뒤뜰에는 커다란 새막이 집이 있어서 이집 저
집 많은 새식구들이 오간다. 덕분에 우리 집에도 나들이하는

내 감나무

노홍식 (14회)

많은 새들을 지난 2년 동안 고맙게 생각해 왔었다. 내 어린감
따갸고 내 감나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새들은 옆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실컷 먹고 우리집에
와서 내감을 따 갸고 축구 배구 하고 놀다 간다. 옆
집에 가서 따져 봐야 해결될 일도 아니겠고 해서
생각 끝에 새망을 구해다 씌워 놓았다.

올해도 감이 몇개 열리지 않아서 새망 값이 더
나가게 생겼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렁이도 밟히면 썩지락
하는데.

과연 이제는 뒤뜰이 정말 조용해졌다. 올 가을에는 잘하
면 내가 기른 감 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새 떠난
뒤뜰이 너무 조용하다.



지난 2018년 남가주선농장학재단이 진행한 모교재학생 초청 'I Dream, I Can' 프로그램 제 1진으로 LA에 왔던 김현아(제시카) 양과 고지민 양이 최근 편지를 보내왔다. 당시 최인영 교사의 인솔로 이곳을 방문했던 5명은 이제 모두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세 학생 모두 미국 여행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대학진학을 엄두도 못 냈는데 이곳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아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현아 양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인근의 시에라 칼리지(커뮤니티 칼리지)에 유학 중이다. 한편 오혜인 양은 모교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급제'해 감동을 줬다. 주제는 'I Dream, I Can'의 미국방문기. 세 학생의 글을 차례로 실는다. | 편집자

“삶의 희망이 없던 저에게...”

| 김현아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전에 저의 꿈은 호텔리어가 확실했지만 그동안 제 장점들을 알아가 보며 (그래픽 디자인, 언어, 운동 등) 여러 분야에 재능을 갖추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학기 시작 전 좀 일찍 가서) 주어진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호텔에서 일을 해보고, 학원에서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등 여러 경험들을 쌓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전공과 직업을 찾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전공과목과 편입할 대학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친구들 처럼 바로 4년제 정규대학을 가서 성과를 이루어 낼 수는 없지만, 저도 부모님도 항상 경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주신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멕시코로 이주한 현아 양은 아버지가 갑자기 타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역이민, 부고에 편입한 경우다. 그래서 한국어 보다는 스페니시와 영어가 더 능숙한 편이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선배님들”

| 고지민

안녕하세요 선배님, 광고디자이너가 꿈인 고지민입니다! 오랜만에 연락 드리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선배님 저는 'I Dream, I Can'에 갔다 온 이후로 광고 디자이너의 꿈이 더욱 확실해져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결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서울여자대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광고디자이너라는 꿈에 가까워지게 도와주신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진거겠죠?

사실 수험생 생활을 하며 대학에 떨어질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붙은 친구를 보며 시기질투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그럴때마다 미국에 갔다 온 좋은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 일어 설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 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만으로도 저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뜻깊은 일이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가지 못할 뻔 했습니다. 'I Dream, I Can' 프로그램은 4명만 뽑았고 저는 5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날 최인영 선생님이 저를 떨어 뜨리기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인영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미국에 가지도 못했고 대학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떠올릴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또한 저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하나님께서 선배님들 같은 천사를 보내주시길 간절히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꼭 선배님들처럼 주님의 은총에 응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LA여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 오혜인

나에겐 첫 해외여행이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 가족 중에 미국을 가본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기에 우리 가족의 관심이 나에게로 쏠렸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던 날, 나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이 행복한 여정의 시작은 우리 학교에 처음 도입된 'I Dream, I Can' 프로그램이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후원으로 학교 내에서 다섯 명의 선발된 친구들이 미국을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지원을 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살 떨리는 면접까지 보게

“영어로 책 다섯 권 냈어요” 고명숙 동문(22회) ... 자서전 집필 중

임혜옥 (17회)



동문 한 분이 책을 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그것도 영어로.

주인공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고명숙 동문(22회, 사진)이다. 이민 2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영어

로 책을 냈으니 화제가 될만도 하겠다.

책을 낸 동기부터 남다르다. 첫째,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어서다. 그래서 내용은 가족 여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미국이며, 남미며, 유럽이며...

첫 편인 'Diverse America on Greens'는 2018년 6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골프장 순례기다. 모두 47쪽 분량이다. 두 번째 'Diverse America on Blue' (40쪽)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남미 크루즈.

이어 'Diverse America on Greens' (37쪽)에는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텍사스 휴스턴을 돌아오는 골프여행기

를 실었다.

가장 최근에 펴낸 책은 'Diverse Europe on Blue' (53쪽). 작년 9월 20일부터 25일간의 유럽 지중해 크루즈를 화보와 곁들였다.

다섯 번째인 'My Life in Diversity'는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담과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한 느낌을 진솔하게 담았다.

이처럼 고 동문 가족은 여행이 삶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또 골프를 좋아해 거의 '그린'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동문이 밝힌 두 번째 동기는 자신의 영어실력 높이고 키우기다. 책을 다섯 권이나 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지 않나 싶다. 발행부수는 한 번에 50 권 안팎.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낸다.

고 동문의 글쓰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섯 번째 요? 자서전을 집필 중이에요.” 물론 영어로 펴낼 계획이다.



되었다. 솔직히 나 스스로 미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 고생을 보상받는 듯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LA 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장 눈에 띄는 건 관제탑 밖에 없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난 이후 항공 관제사를 꿈꿔왔던 나에겐 외국 공항의 관제탑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 해외 관제탑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보안 구역이라 공항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곳을 눈앞에서 보니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일하고 싶던 나의 꿈은 LA 공항 관제탑에서 일하는 항공관제사로 바뀌었다. 그만큼 미국 여행에서 가장 큰 인상을 주었다.

숙소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다. 오기 전에 LA 여행지를 많이 조사했지만, 조사한 것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였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곳이기에 가족과 함께 못 본 것이 무척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US뱅크 타워 꼭대기에 올라선 나는 다짐했다. 여태까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가족들과 함께 성인이 되어 다시 이곳을 돌아오리라고... 내가 멋진 관제사가 되어 이곳 LA를 다시 돌아오리라고... 가족들에게도 한국을 벗어나 이 멋진 도시를 보게 해주리라고... 이렇게 좋은 곳을 혼자 와서 여행하는 동안 내내 한국에 있을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나중에 가족들에게 이런 곳을 보여주면 그만한 효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타워 꼭대기에

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한적한 도시지만, 그 도시가 날 꿈꾸게 만들었다. 사실 한국에만 있어서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여행하는 10일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또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라고...

이번 여행에서 나는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었다. 막연하게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했던 어린아이의 꿈은 선배님들 덕분에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었던 꿈도 이루었다.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성공해서 이곳에 돌아오리라는 꿈도 꾸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꿈을 이루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후배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아직 나의 LA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 꿈들을 이루어야 나의 LA여행은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최진석 동문, 서울대 로스쿨 원장 초청 강연회

서울대 법대 남가주 동창회장인 최진석 동문(16회)이 지난 1월 28일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LA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강연회엔 서울대 법대 동창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동창회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 120여 명이 2층 연회실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을 이뤘다.

장 원장은 “많은 미주 동문들이 대학을 다녔던 60~70년대는 민주화, 경제발전이 중요한 화두였지만 지금은 복지, 공정, 분배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시대의 변화를 설명했다. 장 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해



왼쪽부터 임용 학생부원장, 장승화 원장, 최진석 동문, 조형범 정책기획단 법학발전재단원장.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동문에 따르면 장 원장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지낸 바 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최 동문은 지난 연말 한국을 방문해 장 원장 초청 강연회를 성사시키기 위

해 온 힘을 쏟았다. 과로 탓인지 행사가 끝난 직후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입원, 정밀진단을 받는 등 한동안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기준(6회), 심종택, 정명모 부부(6회), 서기현(15회), 이정혜(17회), 유희자(17회), 박용필(18회) 등 서울대 출신 동문들도 다수 참석해 최 동문을 후원했다.

3회 이인영 동문 이사

최근 LA한인타운 인근의 올림피아 양로병원에서 글렌데일에 소재한 로스 펠리즈 레지덴셜 케어센터(Los Feliz Gardens)로 옮겼다.

이 동문은 거의 10년 동안 올림피아에 거주하며 입주자들의 입(영어 통역 등)이 되어주는 등 봉사에도 열성적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문들이 걱정을 많이 했으나 무탈하다는 소식. 건강은 양호한 편이지만 눈수술을 했는데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 주변에선 안타까워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현재 양로병원 입주자들은 면회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 주소: 205 E. Los Feliz Rd., #102, Glendale, CA 91205

* 휴대폰: (714) 512-0192 * 오피스: (310) 435-2394

.....

8회 하와이 크루즈 ‘아슬아슬’ 관광

지난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보름간 하와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매년 한 번 크루즈 단체 관광을 다녀오는데 이번엔 정말 ‘천우신조’였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해 주변에선 여행 포기를 권유했지만 그냥 계획대로 배를 타기로 했다. 크루즈 회사 측에서 경비를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알려 와서다. 할 수 없이 마스크와 상비약을 단단히 챙겨 승선했는데 아무 탈이 없었다는 것.



김병천 동문은 “아주 평화롭고 평생 잊지 못할 아슬아슬한, 그리고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털어놨다. 곧바로 감염병 사태가 팬데믹으로 이어져 크루즈가 완전 봉쇄됐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여행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것.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하마터면 태평양 한 가운데서 고생을 했을지 싶다며 역시 8회엔 하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고 있는 듯하다고 뿌듯해 했다.

내년 크루즈는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훌쩍 크루즈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11회 곽웅길 동문 별세

곽웅길 동문(11회)이 지난 5월 10일 타계했다.

곽 동문은 그동안 한인언론매체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아 '저지르는 남자, 수습하는 여자'를 펴내는 등 췌장암 투병 중인 가운데도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

지난 1970년 서울대학 졸업 후 미국에 유학 와 줄곧 휴스턴에 살았던 곽 동문은 쉐 오일 리서치 센터 등 주로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했다. 한인커뮤니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휴스턴 한인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시정부가 그의 공을 기려 1995년 12월 12일을 '곽웅길의 날'로 선포하는 등 휴스턴에선 유명인사였다.

장례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제한, 동문들의 조문 없이 진행돼 안타까움을 줬다.

.....

16회 강신호 은사 안부전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한국)이 되면 동기생들이 풀러튼에 살고 계시는 강신호 선생님(지리)을 방문해 인사를 드렸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게 됐다.

따남에 의하면 선생님은 올해 만 90세를 넘겨 기력이 부쩍 떨어졌다.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면 곧 선생님을 찾아뵈 계획이다.

* 주소: 2107 Winterwood Dr.,

Fullerton, CA 92883

* 전화: (714) 423-8841

.....

31회

강태완 동문 민주연합 공동대표



강태완 동문(31회)이 LA민주연합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LA민주연합은 한국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외조직원이다.

상벌포상 위원장도 겸하게 된 강 동문은 이외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사무총장으로도 임명됐다. 강 동문은 또한 평통자문위원으로도 위촉돼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 한편 강 동문은 미주총동창연합회 초대 사무처장을 지내 동창회의 전국조직화에 기여한 바 있다.

추모의 글... 김영교(11회, 시인)

다음은 고 이중희 동문(2회)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절친이었던 김영교 시인이 보내온 추모의 글이다. 이 동문은 지난해 8월 25일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아듀! 마이 디어 바이올린

사흘에 걸친 장례였다. 가족 성당 미사 집례가 한 번, 본당 장례미사, 그리고 그 장례미사 다음날 코로나 델 마 묘소 하관식이 있었다.

깊이 파 둔 자리에 바이올린이 제일 먼저 손 흔들며 아래 동네로 뛰어내렸다. 그가 수시로 연주하던 자식 같은 악기였다. 뒤따라 그 무수한 꽃들이 환한 얼굴로 질서있게 합류했다. 취화 순서였다.

활짝 피어 향기 퍼뜨리던 한 생애가 묻히며 작별을 고했다. 더 이상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실 선배님을 생각했다. 생의 마지막을 당당하게 마주 안으시고 지나온 삶 전체를 학구열 하나로 관통하셨다. 눈가에 고이는 물 끼를 의식했다.

두 내외가 학교 선배이셨다. 동창 인연으로 평소에 존경하던 남편은 고등학교, 미술을 전공한 부인은 대학 선배였다. 이중희 선배는 전교에서 영어와 수학 실력이 천재였다고 한다.

존을 주장하던 환경 박사가 되랜서의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악이 떨어지는 악조건, 그 악취를 중히 박사셨다. 자랑스런 그 선

학구열이 대단한 선배는 5년 논문은 노벨 과학상 위원회 테를 전해 들은 게 3년 전이었다.

췌장암으로 투병, 3년만에 8월 생신을 병상에서 맞았다.

오랜덕 손아래 이웃 후배와 함께 해피 버스테이를 부르며 고통이 덜 해지기를 빌었다. 과학도가 소설도 쓰고 컬럼도 쓰고 중앙일보 년픽션 수기 당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도하는 창작교실에 등록, 시를 배우고저 참석해왔다. 그가 쓴 작품들이 내 사이트에 유언처럼 남아있다.

자수성가한 그가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들려준 얘기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 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고맙다"란 편지 인사가 없어 요새 젊은이는 인사성이 없노라 일침을 언급했다. 직언을 마다하지 않고 불의를 못 견뎌 하는 곧은 성품이셨다.

코로나 델 마 장지는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아주 잘 관리된 경관이 펍 친한 경적이었다. 시원한 초록 잔디밭은 유가족들의 통통 부은 눈을 시원하게 해줬다. 불어오는 바람도, 8월의 따가운 햇볕도 평화로웠다. 자연의 아름다운 햇살을 그 선배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애재라!

가족묘소 앞에서의 하관예배 순서에는 그 수많은 화환들, 꽃들이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풍기며 아래 동네로 낙화 정경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꽃도 조의금도 사절이었지만 배달된 꽃은 선배의 인간관계를 설명해주는 듯 아주 풍성했다.

아름다운 곡 연주를 들려준 그 좋은 두 개의 바이올린은 제 갈 길을 갔을까? 하나는 조카가 원했다고 들었다. 가난한 한 음악도가 고마워할 뻔한 또 하나의 바이올린 - 함께 묻어 달라고 선배는 유언을 남겼을까?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다는 절대 법칙이 따른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멀하고 다만 그 시간이 언제 인 줄은 아무도 모른다. 생명연장 사절의 선배처럼 웰다잉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인류의 건강한 생태계 보여 토런스 시 190가와 크취, 그 불쾌한 냄새로 집값 물리친 과학자가 바로 이배가 88세로 타계했다.

을 더 살고싶어 했다. 그의 이별에 가 닿았다. 그 낭보그러니깐 5년을 못 채우고

.....

.....

.....

.....

.....

.....

.....

◆ 뉴욕 암투병 최규학 동문 부부 지난 10월 부인 세상 떠나

암 투병 중인 최규학 동문(20회, 뉴저지)의 부인 김혜경(테레사)씨가 지난해 10월 17일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최 동문 가족의 딱한 사연은 지난 2018년 인터넷 모금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 실려 알려지게 됐다.

당시 딸 줄리는 ‘고펀드미’에 “지난 2013년 이후 나와 우리 부모님 모두 잇달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며 “나는 어느 정도 암이 치료됐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암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줄리는 “온 가족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 가며 항암치료를 받아 왔는데 병원비로만 매달 2000 달러 넘게 지출하다 보니 도저히 생활비 등이 감당이 안돼 집과 비즈니스까지 팔았다”며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더 악화됐지만 자식인 내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썼다.

“부모님은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 엄마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셨다. 처음엔 이처럼 좋은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질병과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놔다.

유방암에 걸린 어머니는 암 세포가 간을 비롯, 온 몸으로 전이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최 동문은 흉선암을 앓고 있



최규학 김혜경 부부가 나란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 부인은 지난해 암이 전이돼 세상을 떠났다. <사진=고펀드미>

는데 암 세포가 척추와 다리 등으로 번진 상태다.

최 동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고펀드미’엔 지역주민들의 기부가 이어져 목표액이 얼마안가 채워졌다. LA를 비롯해 전국의 20회 동기들도 최 동문 돕기 캠페인을 적극 펼쳐 힘을 보탰다.

‘고펀드미’엔 “지난 16년간 당신 부모님의 세탁소 고객이었다. 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줬다. 기도하겠다” “작은 액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당신 가족에게 기적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등 응원의 댓글이 지금도 달려있다.

딸 줄리는 이제 완치됐으나 최 동문은 여전히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동기생인 권일준 동문은 “(최)규학이가 무척 야위고 기력이 없지만 정신력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 뉴욕

신동기(3회), 최창환(12회) 동문 별세

원로 동문 두 분이 보름 간격으로 타계했다.

신동기 동문(3회)은 5월 16일, 최창환 동문(12회)은 6월 1일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특히 최 동문은 부부가 같은 동기(오영숙)여서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뉴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임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됐다.

◆ 미시건

김정숙(8회), 신세균(22회) 동문 타계

김정숙 동문(8회)이 지난 3월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 동문은 미시건 브라이튼에서 줄곧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왔다. 부군 박용화 박사도 서울대 의대 동문으로 외과의사다.

앞서 신세균 동문(22회)도 지난 2월 3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 동문은 미국에 이민온 후 줄곧 포드 자동차에서 일해왔다. 부인은 22회 동기인 유춘길 동문.

◆ 토론토 (캐나다)

이양배 동문(22회) 새 회장 선출



캐나다 토론토 동문회 신임 회장단이 출범했다. 지난 2월 열린 모임에서 이양배 동문(22회)이 새 회장으로 뽑혔다. 이 신임 회장은 최병재 동문(38회)을 총무로 지명하는 등 회장단을 꾸렸다.

이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민태기(27회) 전임 회장과 장동은(31회) 전임 총무 등과 모임을 갖고 올 한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토론토 동문회는 확인된 회원만도 5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는 2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고참 선배는 12회 김강욱, 윤승구 동문.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여름 바베이쿠 모임과 송년회, 그리고 골프 토너먼트 개최를 하반기 주요 프로젝트로 잡았다. “앞으로 젊은 세대 후배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침체되고 있는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준화이후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며 여기에 동문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서를 위한 여행’ 영화선교사 이성수 감독

김 웅(22회)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만남이었다.

만남의 주인공은 이성수 동문(28회). 명함에 인쇄된 타이틀이 눈에 띈다. ‘필름 미셔너리’다. 영화 선교사라고 할까. 그가 델러스를 찾았다. 자신이 만든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을 갖고서다.



이 동문은 텍사스에서 상복이 터졌다. 지난해 델러스에서 열린 ICFF(세계기독교영화제)에서 관객선택상(Audience Choice)을 받는데 이어 북미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에서 금상 없는 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일반 영화제에서 기독교 영화가 수상한 것은 이

동문이 처음이다.

영화는 한국인 6명, 일본인 6명 등 모두 12명이 자전거를 타고 34일 동안 서울에서 부산, 시모노세키, 오사카, 도쿄까지의 2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담았다.

이 동문은 “영화가 한일간의 용서와 회개를 다룬 작품이다”라



사진 왼쪽부터 김웅, 이성수 감독, 명현욱, 윤영욱, 이명순, 홍대선.

며 “주제가 이 시대 전세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에서 영화상영집회를 가졌는데 델러스는 지난 3월 10일 찾았다. 그의 방문을 맞아 동문들이 함께 모였다. 김웅(22회), 이명순(22회), 명현욱(28회), 윤영욱(28회), 홍대선(윤영욱 부군) 등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해 이 감독의 ‘본 어게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동문은 총무로 영화감독 출신. 대종상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영화 선교사로 변신했으며 지난 2013년엔 캐나다 원주민의 아픔과 치유, 화해와 용서를 그린 다큐멘터리 ‘뷰티풀 차일드’를 제작해 감동을 줬다.

한국과 일본 두나라는 정치적으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 간격을 좁힐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문의 간증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곽정연 동문(24회) 입양인 지원에 ‘올인’



“입양인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면 누구나 이들을 도와야 할 책무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곽정연 동문(24회)은 요즘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이기도 한 곽동문은 미주지역회장단 단독방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글을 올리고 청원

서에 서명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 글에서 곽동문은 모든 입양인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고 알렸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주축이 돼 결성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NAAE)’가 바로 그것.

1946~19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적게는 2만5000명, 많게는 4만9000명에 달한다. 이 중엔 6.25 전쟁 시절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2월 말 이후 태어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1983년 이전 출생자는 나이제한이 적용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의 릭 우달 의원 등이 모든 입양인들에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부여하자는 취지의 ‘입양인시민권법안(HR 2731)’을 공동발의해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의: jennykwak@gmail.com

◆ 시카고

동문 2세 이문태 교수 UIC 부임, 인공지능 전공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립대학(UIC)에 동문 2세가 교수로 부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경영정보결정학과(Information and Decision Sciences)의 이문태 조교수. 서울서 태어나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까지 졸업, 미국에 유학 와 유명대학의 교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부친은 이종걸 동문(18회). 이 동문 또한 한국 외국어대학 명예교수여서 아들이 대를 잇고 있는 셈이다.

이문태 교수는 서강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수학을 복수전공하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이어 미국에 유학 온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응용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이 교수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주요 기업과 학술단체에서 초청이 쇄도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다. 머신 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

노성환 시카고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 교수를 초청, 환영회를 열어 격려해 주겠다고 말했다.

“Simple Truth” 인생이 구름 같다고 했던가?

이항림(28회)



난 지난 20여년 동안 구름 위 하늘 길을 수도 없이 다녔다. 꿈에도 생각지 않다가 열떨결에,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고 그 때부터 시작된

구름 위의 시간 여행. 10시간 남짓한 그 길을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가슴 설레이며, 때로는 온갖 번민에 사로 잡혀서...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어느새 20년이 지났다.

오늘밤, 열린 창으로 진한 꽃향기가 스며든다. 20여년 전의 잠 못 이루던 밤에도 창틈으로 이름모를 꽃 향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20여년 동안의, 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두개의 세계 속에서 공존해야 했던 한 인간. 지구의 반대편이라는 한국과 미국에서 몇달씩의 단편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 한정된 지면 위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친구도, 환경도, 문화도, 일상사도 완전히

다른 두개의 세계, 너무도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현실의 이쪽저쪽을 넘나들며 양쪽 삶의 공백을 메꿔야 했던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사랑했고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20년이라는 단어 속으로 침 잠해버렸다. 이제는 모든것에 편안한 마음으로 Good Bye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이 칠십이 다 되어가는 어느 지인분은 만나기만 하면 아직도 ‘인생이 어땠고, 철학이 어땠고, 현재 자기는 새로운 사상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럴때마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냥 사세요.”

그 나이에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 언젠가부터 간단명료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간단한 진리,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리는 시대에, 머리 속의 잡다한 생각들도 다 털어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처음 미국에 이민 오면 첫 5년간은 밤마다 운다고 들었다. 나는 내가 밤마다 우는 것에 대해 그런 말로 위안을 삼으며, 나만 우는 것은 아닐거라고, 남들도 다 울거라고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말 무모하게도 나는 일가친척이나 친구 하나도 없는 미국땅에 아들과 단둘이, 16살 된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발을 디뎠다. 처음 얼마간은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하느라 매일이 바쁘고 어떨떨해서 외롭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의논할 상대나 도움을 청할 만한 상대도 없는 이국 땅에서 어린 아들과 어떻게든 뿌리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파란 언덕 위에 새하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줄 알았다. 막상 부딪힌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런 환상을 무참

히 깨버렸고, 생활이 아닌 생존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를 바랐고, 눈을 뜨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 때 만약 내게 어린 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난 없을지도 모른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그때부터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과 회한들, 몸과 마음을 갇아먹고 괴롭게 만드는 우울과 불안과 긴장... 내가 왜 지금 이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이러고 있을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어딜까? 나는 왜 이 먼 낯선 땅 낯선 하늘 밑에 누워서 번민하는 것일까?

수없이 던지던 그 질문들. 서서히 내가 처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현실과 직면한 삶이 가져다주는 중압감, 두고온 내 삶의 편린들과 추억들,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 시간들, 남기고 온 온갖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게 느껴질 때는 누군가의 어깨에 잠시만이라도 머리를 기대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누군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 없이 울고 싶은 때도 많았다. 하지만 아무데도 기댈 곳 없던 난, 내가 아들의 기댔곳이

되어주어야 했기에 이민이라는 현실에 눈을 감고 이를 악물어야 했다. 미국땅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가끔씩은 그 사람들이 가엽게 느껴진다. 그리고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크게 외친다. ‘정말 고생하셨어요’라고.

밤이 되면 벼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고, 꿈에서조차 실제 눈물을 흘리며 울기를 반복했다. 잠결에 뭔가 축축한 느낌에 깨어보면 얼굴이 눈물에 젖어있고 벼개가 흥건히 젖어있었다. 아들은 학교만 갔다오면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고 “엄마, 오늘 또 울었어?”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라고, 울지 않았다고 고개를 돌리면 “오늘 또 울었구만 뭘.” 하고 다가와서 살피듯 쳐다보았다.

“엄마가 사춘기가 와서 그래. 여자들은 갱년기 지나면 제2의 사춘기가 오는 거야. 그러면 괜히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이 나고, 엄마만 그런 것 아니고 여자들은 대개 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지?” 억지로 웃어보이며 변명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저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보기에 엄마는 날마다 울고 눈물을 지운 흔적이 있으니 “엄마 갱년기는 왜 이렇게 길어?” 하고 물었다. 아들도 뻔히 다 알지만 속아주겠다는 눈치 같았다.

그 때 나는 인생이 얼마만큼 외로워질수 있는지 알게 됐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더우기 말을 걸어오면 아예 목이메어 한참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깊은 밤에 밖에 나가서 서성이면 어김없이 안개배 같은 것이 내렸다. 머리가 축축해지고 어깨가 젖고 온몸에 한기가 들면 방향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왔다. 난 그것이 비라고 생각했지만 짙은 밤안개가 이슬로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엄마가 ‘사춘기’가 와서 그래.

여자들은 갱년기 지나면 제2의 ‘사춘기’가 오는거야.”



엘에이 밤하늘에 별들은 왜 그리도 많던지... 밤 12시가 지나면 하늘의 별이란 별은 모두 나타나 까맣던 밤하늘이 하얗게 변하며 사방이 환해진다. 한바탕 달빛과 별빛의 휘황한 군무가 이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달과 별은 어디론가 모습을 감추고 까만 새벽이 오고 도시는 정적에 휩싸이곤 했다.

한국에서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울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 대학 기숙사에 떼어놓고 올 때 운다. 18살 아들을 동쪽 끝 대학에 떼어놓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서쪽 끝 엘에이로 돌아오던 날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백인 아주머니가 드넓은 비행장 활주로를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닦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녀도 나처럼 혼자 아들을 떼어놓고 돌아간다. 우리 삶에는 엔 너무 벅찬 일 그렇게 시작된 이중생활. 한 미국에 몇달 살도 꽤났었다. 봄, 한국의 아름다운 조금씩 변하는 서



처럼 혼자 아들은 가는 길인가 보았 혼자서 감당하기들이 정말 많다. 한국과 미국에서 국에 몇달 살고 고... 처음엔 그것 여름 가을, 겨울, 풍경과 갈 때마다 울의 거리들. 언어에 대한 불편도 없고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질감도 없고, 마음 편하고 좋았다.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향수도 없어지고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몇번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한국에 적응이 될만하면 미국에 와야 하고 또 미국에 적응할만 하면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친근한 얼굴들을 마주하며 살다가, 미국에서 무척이나 서툰 영어로 가슴 졸이며 낯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10시간 남짓 비행 시간이 끝나면 몸은 전혀 다른 세계에 와있고, 두 지역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서, 현지에서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문화며 날씨, 생활방식, 지인들, 일상사 등등, 곧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떠돌이, 이방인, 아웃사이더란 느낌과 안착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로 내 인생이 공중에 붕붕 떠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이곳도 저곳도, 어디에 맘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견뎌내야만 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다. 결국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긴 터널을 통과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어느새 20여 년이 흘렀고 아들은 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나는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다.

이제는 하늘 위에서의 10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한 -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없는- 시간으로 즐기게 되었다. 더이상 울지도 않고 더이상 번민도 하지 않는다. 일단 구름 위를 날고 있으면 땅에서의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 땅위의 일들을 걱정한다고 하늘 위에서 어찌해볼 도리도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칵테일도 주문해서 마시고, 음악도 듣고, 아무튼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느낌으로 구름 위를 여행한다.

인생은 그저 Simple Truth 만이 필요하다.

필자는 1980년 장편 '눈에 우는 청노루'로 중앙일보(한국) 신춘문예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동아일보에서도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돼 한국문단에서 크게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다. '내일은 고독' '신의 굴레' 등 10여 편의 장편을 냈다.

미주총동창연합회

회장 김민주(21회 · 213-268-2301)
부회장 각 지역 동창회장
감사 권일준(20회) 재무 김영태(24회)
사무국장 구송영(47회 · 423-991-9610)

지역동창회 회장

남가주 박흥주(22회 · 909-856-6083)
S.F. 광정연(24회 · 650-544-6099)
오레곤 최완섭(22회 · 201-983-2858)
시애틀 한영한(16회 · 818-854-4118)
시카고 노성환(18회 · 630-269-5566)
보스턴 최한길(22회 · 617-733-3709)
필라델피아 이종태(23회 · 267-266-2881)
워싱턴 D.C. 강준식(25회 · 336-605-0086)
뉴욕/뉴저지 오시국(22회 · 646-403-6028)
애틀랜타 임혜옥(17회 · 678-262-7857)
댈러스 김 웅(22회 · 214-284-7572)
미시건 신광용(22회 · 248-974-5426)
토론토 이양배(22회 · 647-554-3428)

남가주 동창회

회장 박흥주(22회 · 909-856-6083)
총무 조남중(34회 · 213-210-8435)

선농합창단 단 장 박영훈(21회 · 818-808-3931)
선농장학위원회 위원장 심재호(27회 · 818-606-8859)
선교회 회장 이석규(16회 · 310-650-8880)
청구회 회장 강병천(16회 · 714-833-9622)
다원회 회장 조남중(34회 · 213-210-8435)

남가주 기수 대표

1회 류문기(818-875-1571)	22회 심종택(626-643-2307)
2회 오영균(213-364-6641)	23회 이매자(213-591-0311)
3회 윤응증(626-652-1953)	24회 김영태(213-700-5591)
4회 이정화(310-386-4046)	25회 차학송(310-293-2663)
5회 송준화(951-226-4745)	26회 백남수(213-392-7633)
6회 윤정현(310-619-8257)	27회 김흥숙(310-387-7422)
7회 윤병남(714-396-3941)	28회 김 건(213-453-3764)
8회 김병천(818-577-6565)	29회 신용철(213-605-1636)
9회 공상원(714-726-3343)	30회 정재황(858-397-4587)
10회 호성진(310-415-7260)	31회 강태완(213-550-7981)
11회 전건식(213-507-8802)	34회 조남중(213-210-8435)
12회 김명신(818-389-1735)	35회 이종신(310-438-0358)
13회 김경자(213-389-3133)	38회 차제명(213-434-4056)
14회 권상덕(310-779-3830)	39회 정현진(213-820-1330)
15회 서기현(213-604-1669)	40회 노정식(213-216-6429)
16회 최영일(213-604-5978)	42회 김상진(818-448-5335)
17회 계인려(818-648-8273)	44회 윤성룡(213-434-2119)
18회 박용필(213-247-7187)	45회 조재경(213-453-9638)
19회 유금혜(310-827-0231)	48회 윤대규(213-393-9690)
20회 권영렬(213-272-6262)	62회 권수지(917-592-6273)
21회 박영훈(818-808-3931)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모교 지원 및 동창회보 발행경비 등으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희망이 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회비 납부서에 내용을 기입하신 다음 점선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어
체크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사대부중·고 동창회 연회비 및 후원금 납부

Make Check Payable to: **SNU High School Alumni**

이 름	() 회)	() \$30
주 소		() \$100
전 화		() \$200
이메일		() \$300
		기타금액: \$

Send Check to SNU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Peter Roh

CPA·CMA·MBA·ICCRC



Accounting & Taxation | BIZ Consulting | Immigration

GLOBAL TAX SERVICES PROFESSIONAL CORPORATION

IJU CANADA INC. (o/a Global Immigration)

152-7181 Yonge St., Thornhill, ON, L3T 0C7
Tel 1-905-731-0806 (ex)21 | Cell 1-647-226-1661
Toll Free 1-866-369-0806 | Fax 1-905-731-0878
Email proh@globaltax.ca, proh@globaliju.com

노문선 (23회)

공인회계사 및 이민관련 업무 대행

뉴스타 “Jeny” 곽정연 부동산

주택 / 콘도 / 아파트 / 상가건물 / 사업체 / E-2

www.norcalnewstarrealty.com



“Jeny” 곽정연
CCIM Candidate
DIRE# 01383036

경력

- (현) 뉴스타샌프란시스코 부사장
상업투자 및 주택전문
38년간 베이지역 거주
산마테오 부동산협회 멤버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멤버
미주 부동산협회 멤버
- (전) Coldwell Banker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매니저

학력

EMBA Global 외국어대
이화여자대학교 독문과
사울사대부고



부동산 투자만큼은
완벽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차원이 다른 **Professional**을
선택하십시오.



e-mail: jenykwak@gmail.com

www.norcalnewstarrealty.com/jenykwak

베이 전지역에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

San Francisco, Santa Clara, Dublin, Millbrae
네 곳에서 미리 전화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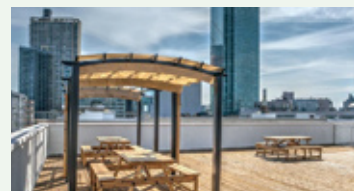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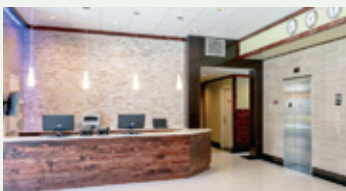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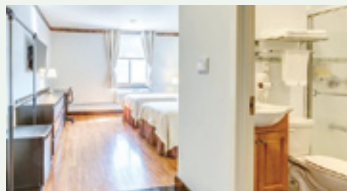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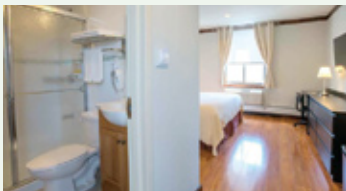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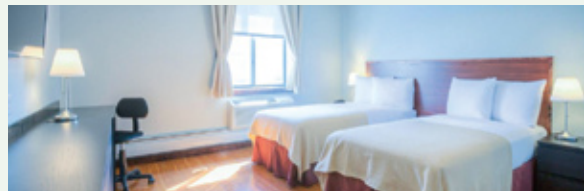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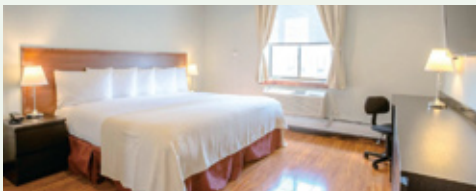
Cell Phone
650-544-6099

- 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 7033 Village Parkway, #210, Dublin, CA 94568
- Mailing Addr.: P.O. Box 997 Millbrae, CA 94030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44-0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718-406-9788

www.lichotelny.com



김승호(23회) · 김지화